‘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섬세함으로 잡은 재미와 메시지

유종의 미 거두며 힐링 드라마로 남아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 유종의 미를 거뒀다. 원작 웹툰이 지닌 메시지와 재미를 모두 담아내며 한 편의 힐링 드라마로 남았다.

지난 15일 밤 종합편성채널 JTBC 금토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극본 최수영·연출 최성범)이 종영했다.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은 어릴 적부터 못생긴 외모로 놀림을 받았고, 그래서 성형수술로 새 삶을 얻을 줄 알았던 여자 강미래(임수향)가 대학 입학 후 꿈꿔왔던 것과는 다른 캠퍼스 라이프를 겪게 되면서 진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각색됐다.

원작 웹툰은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외모에 대한 강박을 겪는 청춘들과 외모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다수의 원작 팬들은 드라마화 과정에서 이 같은 메시지가 제대로 담길 수 있을까 우려의 메시지가 높았다. 그러나 드라마는 16회 동안 흔들림 없이 원작 원작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반영해냈다.

특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은 아름다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담지 않으려 경계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극 초반 강미래의 성형 전 서사를 그리며 성형 전 모습을 연기하는 배우의 얼굴을 제대로 비추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에서 ‘못생김’이라는 규정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 의도된 것으로, 작품이 담는 메시지를 이해한 적절한 연출이었다.

또한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은 원작엔 없던 오리지널 에피소드를 추가해 주인공과 공감대를 더 공고히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회 속 신인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미래가 친구들의 앞에서 춤을 추고 엄마와 통화를 나누는 에피소드는 많은 시청자들이 강미래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었다.

춤을 춘 뒤 친구들의 환호를 받고 행복해하는 강미래의 모습은 처음 경험하는 관심에 강미래의 행복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고, 엄마와의 통화에서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오리지널 에피소드는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며 재미도 더했다.

또 가출한 도경석(차은우)과 조교 연우영(곽동연)의 동거 에피소드는 도경석과 강미래, 연우영의 삼각관계에 힘을 보태며 새로운 재미를 이끌어냈다. 또한 원작에 없던 강미래의 절친 오현정(도희)을 새롭게 등장시키거나, 강미래와 도경석의 가족 에피소드를 강화시키며 주변 인물들을 통해 작품에 따뜻함을 추가했다.

싱크로율 높은 캐스팅과 주인공들의 열연도 시청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강미래는 임수향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울 수준이었다. 임수향은 외모 트라우마에 갇혀 주눅든 강미래의 모습부터 점차 이를 극복해가며 자신감을 얻는 모습까지 섬세한 연기력으로 표현해냈다.

시청률 2.8%(닐슨코리아, 전국유료가구기준)으로 시작한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은 매주 시청률 상승을 거듭했다. 마지막화는 자체 최고 시청률인 5.8%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박수 속에 막을 내렸다.

강미래의 성장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힐링할 수 있었던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었다.

영화 ‘안시성’, 웰메이드 고구려 활극

이달 19일 개봉을 앞둔 영화 ‘안시성’(감독 김광식, 제공배급 NEW, 제작 영화사수작 스튜디오앤뉴 모티브랩)은 고구려로 간 액션 활극이다. 그간 국내 영화계에서 주로 조선시대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다뤄왔는데, ‘안시성’은 그보다 앞선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삼아 차별성을 띈다.

‘안시성’은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로 전해지는 88일간의 안시성 전투를 그린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이다.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2013), ‘내 깡패 같은 애인’(2010)의 각본 연출을 맡았던 김광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드라마와 액션의 최적화된 컬레버레이션을 완성했다.

‘안시성’은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가 침입했을 시기, 안시성에서 고구려와 당나라 군대 사이에 벌어졌던 치열한 공방전을 담았다. 당나라가 연개소문(유오성 분) 집권을 핑계로 고구려를 침입했으나 고구려는 안시성 싸움에서 크게 승리해 물리쳤다.

포기를 모르는 양만춘(조인성 분)은 호락호락 성문을 열지 않았다. 안시성의 고구려군은 성주 양만춘의 지휘 아래 백성들과 힘을 합쳐 당나라군의 거센 공격을 막아냈다. 거듭되는 적군의 공격을 번번이 물리치면서 점차 기세도 높아졌고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당나라군은 50만 명을 동원해 안시성의 성벽보다 높은 흙산을 쌓아 성을 공격했다.

흙산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서 되레 고구려군에게 기세를 빼앗기고 말았다. 진전 없이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간은 흘러 겨울이 됐고, 날씨가 추워지고 식량이 떨어지자 당의 군사들은 지쳐 철수를 명령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양만춘 장군이 부하, 백성들과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우고 결국 성을 지켜낸 과정이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맥박을 빨라지게 하는 액션 활극이 심장 뛰는 재미를 약속한다.

영화 ‘안시성’은 고구려 시대 안시성과 양만춘에 대한 많지 않은 사료로 시작된 영화다. 말 그대로 고증이 어려운 시대를 고증한 것인데, 연출을 맡은 김광식 감독은 주필산 전투부터 2번의 공성전, 토산 전투까지 웅장하고 화려한 전쟁 시퀀스를 재현하기 위해 100여 권의 역사서를 참고하며 승리의 역사를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고증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고증했고, 사료가 없는 부분은 감독의 상상력을 더해 이른바 ‘팩션 사극’으로 만든 것이다.

양만춘 역을 맡은 조인성의 연기 변신이 ‘안시성’의 관전 포인트. 주저함이 없고 용맹한 양만춘 캐릭터에 ‘베품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조인성의 실제 성격을 반영해 매력적인 리더를 만들었다. 조인성은 양만춘이 어떤 성격인지, 나이는 얼마나 됐고, 극 중에서 다른 캐릭터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지 철저하게 분석했다. 자신이 맡은 배역만 분석해서도 안 되는 작품이었는데,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추는 배우들과의 조화를 고려해 작품 속에서 자신의 캐릭터 포지셔닝에 신경 썼다.

영화는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므로 자신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조인성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매력적인 비주얼을 지녔다고 해서 주변과 조화가 되지 않고 혼자만 튄다면, 드라마와 액션이 완성될 수도 없고 오히려 작품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용기 있는 도전이라는 값진 여운을 남겼다.

연개소문의 지령을 받고 안시성에 들어온 태학도 수장 사물 역은 모델 출신 남주혁이 맡아 기대 이상의 연기력을 보여줬다. 조인성, 배성우, 박성웅, 엄태구 등 선배 배우들과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 및 액션 연기를 보여주며 활약했다.

조인성과 남주혁이 한 스크린에서 공존하고 대결하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고구려 시대판 액션 활극의 쾌감을 극대화한다.

tvN ‘현지에서 먹힐까?’ 중국편

tvN ‘현지에서 먹힐까?’ 중국편, 평균시청률 4% 돌파

지난 15일(토) 오후 6시에 방송한 tvN ‘현지에서 먹힐까?’ 중국편 2화의 전국 가구 시청률이 평균 4.1%, 최고 5.9%로나타나며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타깃시청률(남녀2049세)은 평균 2.6%, 최고 3.8%를기록하며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닐슨코리아/전국/유료플랫폼기준)

이날 방송에서는 이연복 셰프와 배우 김강우, 개그맨 허경환, 배우 서은수가 중국 본토에서 한국식 중화요리를 선보이는 ‘현지반점’을 운영하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그려졌다. “짜장면이 중국 현지에서 먹힐까?”라는 신선한 물음에서 출발한 이들의 도전은 첫 장사부터 성공적이었다. 이연복 셰프팀의 짜장면을 맛보기 위해 현지인들의 긴 줄이 늘어섰고, 판매를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되어 완판 신화를 기록하는 쾌거를 낳았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현지 요리 전문가가 ‘현지반점’을 비밀리에 방문해 새로운 재미를 전했다. 100년 전통 산둥요리 전문점의 4대 계승자 류아오가 현지반점을 직접 방문해 음식의 맛을 별점으로 평가한 것. 류아오는 “수년간의 경험과 내공이 느껴진다. 능수능란하고 존경스럽다”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면 누구든 좋아할 것 같다”고 호평했다. 현슐랭 평가에서 3스타를 받은 이연복 셰프팀은 첫날 성과에 뿌듯해하며 한껏 고무되었다.

이어 멤버들은 다음 날, 회심의 메뉴 ‘짬뽕’으로 중국 본토 공략에 나섰다. 짬뽕 판매를 앞두고 허경환은 “벌써 매진 그림이 그려진다”고, 이연복셰프도 “짬뽕이면 매진된 거나 마찬가지”라며자신만만해했다. 하지만 막상 짬뽕 판매를 시작하자 예상과달리, 이를 맛본 어린 아이들이 매운 맛에 울음을 터뜨리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에 이연복 셰프는 고민 끝에 메뉴를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백짬뽕으로 변경하고, 메뉴에 짜장면을 추가했다. 짜장면 냄새에 중국 현지 손님들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또 한번 반전됐다. ‘현지에서 먹힐까?’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방송된다.

오늘의 운세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음력 8월 8일)

▶쥐띠 모든 일을 급히 서둘지 말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 수양하며 기다려야 한다. 애정은 삼각관계가 이뤄지겠다. 용기 있는 자만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접근해 내 것을 챙기라. 북서쪽이 길하다.

▶소띠 막힌 일이 뜻밖에 술술 풀려나가는구나. 급하게 이루려 하지 말고, 착실히 한 발씩 올라가라. 애정은 결혼 상대가 아닌 이성의 접근을 주의하라. 후회할 일이 생긴다. 제지나 의류업 종사자는 길하다.

▶호랑이띠 새로 시작하는 일은 모두 순조로우나 지출이 너무 많아 걱정된다. 금전 관리는 여자에게 맡기고 자기 일에만 충실할 때 대업으로 이어진다. 쥐, 말, 토끼띠가 배필이다. 8월생은 2, 11월생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토끼띠 과욕을 버리고 분수대로 대처하면 순조롭게 이뤄지겠다. 그러나 순간에 다른 일이 생겨날 수 있으니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3, 5, 9월생 정신적인 피로로 건강이 염려되니 일찍 귀가해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하라.

▶용띠 무리하지 말고 순리를 지켜나가라. 자만하면 모든 일을 그르친다.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현상 유지에 신경 쓰라. 애정은 내가 사람을 좋아하나 모두 나를 멀리하는 격이다.

▶뱀띠 하려고 한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라. 소기의 목적이 이뤄지는 길일이다. 오후보다 오전에 이득이 있겠다. 힘든 일은 주위에 도움을 청하면 해결된다. 애정은 고민이 시작해도 위기를 면할 기회가 주어진다.

▶말띠 주위 영향으로 변동 수가 있구나. 남이 도움을 준다고 해도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된다. 운이 서서히 열리는 입구에 다다랐으니 열과 성을 다해 쌓아 올리라. 9, 10, 12월생 금전으로 고심한다면 동쪽 사람에게 협조를 구하라.

▶양띠 고난을 헤쳐 온 끈질김으로 매사 임하면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 과거 고난을 거울삼아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 때 사랑하는 가족 또한 웃겠다. ㄱ, ㅇ, ㅁ 성씨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모두를 위하는 길임을 알라.

▶원숭이띠 새롭게 시작하기보다 현재 위치에서 안주하는 것이 더 낫다. 동료와 사사로운 언쟁은 피하고, 협력할 때 기대 이상 성과가 있겠다. 1, 4, 9월생 육체 피로가 따르니 신경성이나 소화기 계통 신병에 주의하라.

▶닭띠 현재는 불황이라 마음이 답답하겠다. 그러나 지난 것을 잊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라. 애정 문제, 자식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써 푸는 것이 현명하겠다.

▶개띠 지속해서 노력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겠다. 남의 눈을 신경 쓰지 말고 현재대로 밀고 나아가면 기대 이상 성과가 따른다. 기회를 포착하라. 행운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밤길 운전을 조심하라.

▶돼지띠 하는 일이 힘들어 중도에 포기할 수 있으나 곧 새로운 행운이 열린다. 자기 수양에 힘쓰라. 대인관계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처리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4, 9, 11월생 애정은 기쁜 일이 생긴다.